韓國文學論叢 第15輯(1994. 12) pp.489~511

現代 婚禮의 問題分析 및 改善方案

金 時 晃*

목 차

1. 머리말
2. 婚姻 請牒
3. 現代 結婚式
4. 問題點 및 弊端
5. 맺는말

1. 머리말

婚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禮를 갖추어 夫婦가 되는 하나의 사회제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慣習이나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며, 남녀간의 애정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을 가지게 되고, 공동의 목적 아래 상호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夫婦가 되면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아내는 또한 가정에 있어서 남편을 內助하고 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곧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外的 활동을 담당하며, 아내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집안 살림을 맡아 처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각각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두 남녀가 부부가 되어 고락을 같이 하며 일생 동안 살아갈 것을 천지신명과 부모 및 가족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짐함과 동시에, 부부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알리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

婚姻 制度는 원시시대부터 생겨 나서, 지역과 종족 및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천해 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婚禮를 四禮 中의 하나로 대단히 중요시해 왔다.

禮는 일반적으로 인간 생활에 있어서 바람직한 행동, 곧 윤리적인 태도인 것이다. 禮는 情에서 나온다고 해서, 人情에 따르되 이를 節制하고 文飾해야 한다. 人情을 절제하고 문식하는 禮는 人間 行爲의 中正性을 규정하는 것이다. 行爲의 中正性은 인간 윤리의 표준이요 목표요 當爲이다. 中正은 過不及이 없는 것이다. 곧 자연의 이치에 맞아야 한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생명체이므로, 인간의 행동은 固定 不變일 수는 없다. 그래서 禮도 時宜性이 인정되고 또 중요시 되는 것이다. 孟子가 孔子를 時中하다고 한 것은 中正이 時宜性을 잃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禮로서 中正을 기하고 時宜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논란 및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근세 開化 이후부터는 西洋의 文物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는 거의 무너지고, 새로운 현대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가운데, 婚禮 또한 무원칙 무질서와 혼란을 거듭해 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名利나 經濟 生活의 발전에만 급급하여, 비판이나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었다. 곧 행동 하나하나가 理致에 맞는가, 節文에 합당한가, 지나치냐 못 미치느냐에 대해서 조금도 따져 보지 않았다. 처음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차츰차츰 模倣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 일반화 되고 만 것이다. 그러니 中正과 節文에 합당할 리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옛날의 婚禮보다 현대의 결혼 및 결혼식 자체는 절차가 간소하고 편리한 것 같으나, 실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오히려 거북하고 힘들게 된 경우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 고대 혼례나 혼례의 변천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결혼식을 중심으로 하여, 우선 그 첫 단계인 請牒에 대한 것과 結婚式 자체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전통 문화와 어느 정도 接脈을 시도함과 동시, 현대 생활에 알맞고 적절한 禮는 어떤 것인가 하는 점도 아울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용어에 있어서는 고대에는 昏禮, 婚禮, 婚姻 등의 말을 써 왔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結婚이란 말을 편의상 쓰고자 한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하는 結婚 儀式과, 소위 전통 혼례라 하여 舊式으로 하는 것도 제외하며, 일반 예식장이나 기타 공공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2. 婚姻 請牒

請牒은 請牒狀, 請狀, 請簡, 請札, 請帖, 請招, 招請狀, 招待狀, 謹啓, 案內, 案內狀, 알림, 알리는 말씀 등의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다. 請牒이라 하면 招請하는 글(片紙)을 뜻하는데 거기에 또 狀字를 덧붙일 필요가 없지만, 습관적으로 한 자 더 첨가하여 請牒狀이라 쓰기도 한다.

請牒은 주로 慶事가 있을 때 주인 쪽에서 남을 초청하는 글을 말한다. 옛날에는 혼인할 때 남을 초청하는 글을 보내지 않고 이웃 사람이나 친척 친지들에게 口頭로 전하고, 먼 곳에는 편지로 알린 것 같다. 필자의 과문 탓인지 모르지만 지금 옛날 청첩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개화 이후 청첩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는 청첩이란 말을 쓰지 않고 알림, 알리는 말씀, 안내, 안내장, 안내말씀 등의 용어를 써서 초청한다는 뜻을 은근히 감추어 버리는 경향도 있다. 이것은 家庭儀禮法(또는 準則)이 생겨난 이후, 청첩을 넓게 인쇄물로 하는 것을 금지한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와서 축하해 달라, 자리를 빛내 달라, 행복을 빌어 달라는 등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효력은 청첩과 마찬가지다.

청하는 글이든 알리는 글이든 일정한 樣式을 갖추는 것이 禮義이며, 공문서는 아니지만 공적으로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발행하는 공용 문서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 행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글이

든 題目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머리말, 본문, 맺는말, 보내는 날짜(發行日),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등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식이다. 그리고 소위 六何原則이라 하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하는 식으로 내용을 빠뜨리지 말아한다.

혼인 청첩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題目, 序頭 人事, 婚主와 當事者, 날짜, 장소, 발행일, 청첩인, 받을 상대 등이 明示되어야 할 것이다.

2.1 題目과 內容의 一致

請牒 招待, 案內 알림 어느 것이든 상관 없지만 내용과의 일관성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첩 초대라 했으면 오라는 것, 와서 축하해 달라, 와서 자리를 빛내 달라는 것이 되고, 안내, 알림이라면 끝까지 안내만 하고, 알리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지, 제목에 안내 알림이라 해 놓고 本文 중에서, 와서 축하해 달라, 자리를 빛내 달라고 하면 일관성이 없고,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청첩 초대라 해 놓고 끝에 가서 '알립니다, 안내합니다'로 끝나도 안된다. 謹啓는 '삼가 알립니다'의 뜻이고, 時下는 '때는'의 뜻인데, 謹啓와 題目을 같이 쓰거나, 謹啓와 時下를 달아 붙여 쓰면 옳지 않다.

2.2 當事者 明示

청첩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당사자의 명시일 것이다. 누구와 누구가 혼인한다. 누구의 아들 딸이 혼인한다고 하지 않고 신랑이나 신부 어느 한 쪽만 명시해서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쌍방 혼주와 당사자가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니 청첩은 兩者가 함께 발행하는 것이 좋다. 따로따로 하게 되니까 한쪽만 명시하고 다른 한 쪽은 나타내지 않게 된다.

婚主 이름을 아래에 氏字를 쓰는 것이 당연한데, 氏字를 쓰지 않는 것은 청첩하는 사람이 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신랑 신부의 어머니까지도 명시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랑 이름 아래 君(군), 신부 이름 아래 孃(양)하고 쓰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君·孃이 존칭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군·양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빼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무방하지 않나 생각된다.

2.3 婚姻 날짜와 시간 장소의 표시

당사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혼인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의 表示이다. 이것이 분명해야 축하객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 모두들 다 잘하고 있지만, 이 혼인 날짜와 시간, 장소 明示가 本文 밖 가장자리로 쫓겨나는 예가 많다. 어느 날 몇 시, 어디로 오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본문 밖 가장자리에 표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교통편이나 주소, 약도 같은 것을 참고로 안내하는 경우는 별도의 난을 설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행사를 할 때의 초청장이나 안내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난 밖에 표시하는 것은 참고하라는 말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최근 청첩에서 이런 것이 常例가 된듯 한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모두 생각 없이 따라 한 것이고, 또 樣式을 찾기 귀찮기 때문에 印刷所에 있는 여러 가지 양식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2.4 보내는 날짜(發行日) 및 보내는 사람(請牒人, 案內人)

보내는 날짜(청첩 발행일)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문은 아니지만 發行日字가 없을 수 없다. 공문서는 물론이고, 私的인 개인 편지라도 날짜를 써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무관심으로 인한 실수이다.

보내는 사람 곧 청첩인(초청인, 안내인, 알리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청첩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혼주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친척 친지에게 사사로이 편지로써 초청을 하거나, 알릴 때는 혼주 이름으로 해도 무방하겠지만 공적인 청첩이나 초대는 혼주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영광스럽고 경사스런 일이지만 자기의 아들 딸을 혼인시키는데 와서 축하해

달라, 자리를 빛내 달라 하기란 민망스럽고 미안한 일이고, 또한 요즘 청첩이나 안내는 사실상 부조를 하라는 뜻이 되므로 더구나 피해야 하지 않나 한다. 그러므로 혼주가 할 것이 아니라 친족 대표나 친구 대표가 하는 것이 도리상 옳을 것이다.

요즘 청첩을 보면 청첩인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兩家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친족 대표나 친구들이 나서서 축하해 주고 도와 주고 부조도 하자고 齊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치상 맞고 도리상 당연한 것이다.

家庭儀禮準則과 同法이 實施될 때, 이 청첩의 弊端을 없애기 위해 공직에 있는 사람은 청첩을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청첩인의 이름을 감추었는데, 이것이 그만 잘못 慣例가 된 것이다.

2.5 받을 사람 明示 및 請牒의 濫發

받을 사람은 이름은 封套에 쓰기 때문에 없어도 無妨하다. 그러나 받을 사람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同令夫人 座下라고만 써 놓으면 令夫人만 오라는 결과가 된다. 同令夫人을 같이 초대하려면 남자 이름을 쓰고 同令夫人이라고 써야 한다.

請牒의 濫發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 왔지만, 副作用만 있었을 뿐 별 효과를 얻지 못한 것 같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가 아니고, 한 번 명함을 교환한 사람, 어떤 모임에서 같은 會員이긴 하나 잘 모르는 사람, 한 同僚이긴 하나 친하게 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上下 關係가 거북한 경우 등은 피해야 하는 것이 常識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2.6 用紙 樣式 및 規格

公文書의 用紙는 모조지, 전지, 16절지를 세워서 쓰거나, 내용이 많지 않을 경우 32절지를 쓰도록 되어 있었다. 지금은 컴퓨터 용지가 새로 나와 그 규격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청첩은 가로로 쓰거나 세로로 쓰거나 관계 없을 것이

고, 두꺼운 종이에 채색을 넣거나, 그림을 그려 넣어 접는 경우도 상관 없다.

그러나 종이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규격 봉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모조지, 전지, 16절 정도의 크기를 접어서 쓰거나, 컴퓨터 용지에 맞는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7 封套 樣式

封套 樣式은 옛날 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변천해 온 것 같다. 옛날이라야 약 300여년 전 것밖에 보지 못했으므로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 옛날부터 개화 이전까지는 封에다가 세로로 썼는데, 받을 사람 이름을 왼쪽 위로 올려 쓰고, 보내는 사람 이름을 오른쪽 아래에 낮추어 썼다. 郵政 制度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주소는 무슨 洞 程度로 썼고, 또 사람이 전했기 때문에 명확한 주소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최근까지도 노인층에서는 이렇게 쓰는 사람이 간혹 있다.

開化 以後 郵政 制度가 생긴 뒤부터는 皮에 세로로, 받을 사람의 주소를 오른 쪽에 올려 쓰고, 왼쪽에 받을 사람 이름을 역시 높여 썼다. 그리고 封에는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삼분의 일정도 낮추고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썼다. 우표는 皮의 왼쪽 상단에 붙였다.

西歐 文化가 본격적으로 들어와 모든 文物 制度가 서구화 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 특히 1960-70년대에 와서는 가로 쓰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서구식 가로 쓰기는 皮에만 썼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를 왼쪽 위에 작게 쓰고, 받는 사람 이름, 주소, 우편번호를 중앙에서 오른쪽 아래로 크게 쓰게 되어 있다. 우표는 오른쪽 상단에 붙인다.

國際化 시대에 맞추어 西歐化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그러나 東西洋을 막론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받는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므로 보내는 자기의 이름은 작게 왼쪽 위로 가급적 치우쳐 쓰고, 받을 상대의 이름은 중앙에 크게 쓰는 것이 예의에 맞고 또한 겸손한 도리이다.

그런데 상대방 이름을 크게 높여 쓰고 자기 이름을 작게 낮추어 쓰던 美德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서구식과 한국식이 혼용되어 상

대방 주소를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쓰니까 자연 상대방 이름이 오른쪽 아래로 낮추어진 것이다. 정부에서 제작한 행정 우편 봉투나, 우편 엽서, 연하 엽서 등 인쇄된 모든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쓸 자리를 명시해 놓았다. 이름 쓸 자리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주소부터 쓰다 보니 아예 이름이 저절로 낮아져 버린 것이다.

더구나 개인 사용의 봉투를 보면 자기의 성명을 너무 크게 인쇄했을 뿐만 아니라 주소와 직장, 직책, 전화번호, 팩시밀리, 우편번호 등 복잡한 내용을 다 기록하다 보니까 난이 넓고 커지게 되고, 상대방 주소나 성명은 타자나 컴퓨터로 작게 인쇄하여 오른쪽 下端에 오려 붙이니까, 상대를 극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름 쓸 자리 아래 '貴下'란 글자를 처음부터 낮추어 인쇄해 놓은 데도 문제는 없지 않다. 과거 문교부를 비롯한 전국 규모의 學會에서도 그렇게 해 왔으니 앞으로 是正하기는 극난한 형편이다.

西洋 사람이나 中國, 日本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와 같은 失禮를 거의 하지 않는다. 아마 누구나 생활화 되어 있는 모양이다. 오직 우리나라 지식인들만이 이러한 失禮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3. 現代 結婚式

우리나라 婚禮는 奠雁禮, 交拜禮, 合巹禮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奠雁禮란 혼례의 첫 단계로서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북쪽을 향해 두 번 절하는 禮를 말한다. 신랑이 신부 집 문 앞에 들어서면 신부쪽 혼주가 대문 밖에서 신랑을 맞아 들인다. 신랑은 揖을 하고 사양하면서 들어 온다. 侍者가 기러기를 안고 따른다. 신랑은 기러기의 머리를 왼쪽으로 가게 하여 안고, 북쪽을 향해 꿇어 앉는다. 기러기를 床 위에 놓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한다.

交拜禮란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相面하여 서로 禮를 교환하는 것으로 가장 뜻 있고 중요한 것이다. 신랑이 자리(禮席) 가에 나와 서면 여스승(姆)이 신부를 인도하여 나온다. 신랑은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선다. 손 씻을 물

을 각각 준비해 놓는다. 신랑은 남쪽에서 손을 씻고, 신부는 북쪽에서 손을 씻는다.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하면 신랑은 답례로 한 번 절한다. 신부가 또 두 번 절하면 신랑이 또 한 번 절한다.

合巹禮는 신랑·신부가 술잔을 서로 주고 받는 禮이다. 合巹이란 술잔을 맞춘다는 뜻으로 부부가 됨을 말한다. 신랑·신부가 각각 꿇어 앉으면, 侍者들이 표주박과 같은 술잔을 신랑과 신부 앞에 갖다 놓는다. 각각 술을 따르면 祭酒하고 안주를 든다. 또 侍者가 술을 따르면 각각 揖을 하고 마신다. 侍者가 또 술을 따르면 술잔을 서로 교환한다. 이 禮는 지방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지금의 결혼식은 전안례와 합근례는 없어지고 교배례만 하는 셈이다. 거기에다 옛날에 하지 않았던 몇 가지의 행동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행동은 하나하나가 이치에 맞고 의미 있는 행동이어야 한다.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본다.

3.1 主禮와 司會

婚禮에서 主禮라는 것이 생긴지도 오래지는 않았다. 笏記 부르는 사람이 홀기를 부르면 그에 따라 한 동작 한 동작 진행해 갔는데, 지금은 주례와 사회자가 같이 식을 진행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주례는 무엇보다도 연령이나 學德이 높고 人品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흠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喪主나 불행한 사람은 주례를 스스로 사양하고 피해야 한다. 자식을 못 낳은 사람, 喪妻한 사람, 妾을 둔 사람, 이혼한 사람 등은 어울리지 않고, 또 大學 敎授라 해서 너무 젊고 인생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公務員이나 敎職 등 社會에서 奉仕 活動을 거의 평생 동안 한 사람으로서,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福이 많으며, 여러 사람에게 信任과 尊敬을 받을 수 있는 이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신랑 신부에게 좋은 말을 해 줄 수 있고, 또 公證人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하겠다.

司會者의 할 일은 禮式의 모든 일을 맡아 進行시키는 사람이므로 主禮나 婚主의 할 일을 자기가 해 버리는 越權을 삼가야 하겠다. 신랑·신부를 紹介

하는 일, 지나치게 美化시켜 칭찬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祝賀客들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은 兩家 婚主의 할 일이며, 주례를 지나치게 추켜 세우거나 主禮辭를 要約하여 反復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

3.2 點 燭

點燭이란 '촛불을 켠다, 촛불을 붙인다'는 뜻이겠으나 국어 사전, 한문 사전을 막론하고 辭典에는 없는 말이다. 점화(點火), 점등(點燈)이란 말은 있어도 점촉이란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말이 생겨난 지가 오래 된 것은 아닌 듯하다.

옛날 혼례는 어두운 저녁에 했기 때문에 昏禮라고 썼다 하는데, 저녁에 하자면 불을 밝혔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촛불이 없을 때는 횃불을 켰다. 아마 관솔불이나 기름으로 불을 켰을 것이다. 그러한 예는 여러 禮書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촛불은 또 慇懃하고 嚴肅하며 敬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儀式에서 촛불을 많이 켜 놓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결혼식에 있어서 이 촛불을 반드시 켜야 하는가, 켠다면 누가 켜야 하는 것인가, 반드시 혼주가 켜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다. 지금 일반적으로 바깥 혼주가 켜 왔는데,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바깥 혼주가 안 켜는 곳도 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남자만 나가서 촛불을 켜고, 여자는 하지 않은 것은 남녀 평등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說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남자는 딸을 데리고 入場하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자도 나서서 무엇인가 한 가지 해야 한다는 뜻에서 생긴 것이라는 說도 있다. 모두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촛불은 켠다면 執事者가 켜야 한다. 아랫 사람으로서,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결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켜 놓아야 하는 것이다. 西洋 風俗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東洋에서는 그런 줄 알고 있다.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 의식에서도 촛불을 執事者가 미리 켜 놓고 시작하는 것으로 안다. 祭祀 지낼 때도 祭主가 촛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집사자들이 미리 켜 놓는 것이

다. 婚禮에서의 婚主는 윗어른이기 때문에 윗어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다.

어떤 女人은 말하기를 아들 딸의 영광스런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축하의 촛불을 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다. 얼른 생각하면 그럴 법한 말 같기도 하나, 부모는 마음 속으로 축하하는 것이지, 그러한 사소한 행동으로써 자녀의 영광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3.3 新郎.新婦의 入場

新郎·新婦는 盛裝을 하고 각자 大禮席에 나가게 된다. 大禮席에 나가서는 서로 절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고,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했다.

그런데 신랑이 入場한 뒤, 주례와 양가 부모에게 절하고, 신부가 입장할 때 신부를 引導하는 사람(요즘 보통 丈人될 사람)에게 또 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大禮席에서 신랑이 신부와 交拜禮를 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된다. 交拜禮를 마친 뒤에 인사하는 것은 當然하나, 交拜禮 보다 優先하는 禮는 있을 수가 없다.

부모를 뵈옵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절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祭祀 지내는 자리에서 神位를 두고 먼저 다른 사람과 인사하는 것도 안될 것이다. 問喪하는 자리에서 靈位나 喪主보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되겠는가? 婚禮에서는 신랑에게는 신부가, 신부에게는 신랑이 가장 중요하고 높은 사람일 것이므로 優先임이 분명하다.

新婦가 入場할 때 흔히 新婦 아버지가 式場에 引導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옳지 않다고 본다. 신부 아버지는 혼주로서 혼주 자리에 謹嚴하게 앉아 있어야 된다. 신부의 入場을 돕는 사람은 여스승(姆)이었다. 手母, 乳母들이 하기도 하는데, 이들을 꽃각시라고도 한다. 종늘이 하거나 出嫁한 姑母, 姨母, 시집 간 언니들이 하기도 했다. 또 친구들이 양쪽에서 부축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退場할 때 見舅姑禮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見舅姑禮 할 때 절을 누가 시키는가 생각해 보면 당연함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없을 때 祖父나 叔父 또는 오라비가 인도하기도 한다. 아직까지 어머니가 나서는 것은 보지 못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제까지 딸을 아버지가 고이 기르고 보호하고 먹여 살리다가, 신랑에게 그 모든 책임을 인도하는 의미라고 한다. 정말 얼토당토 않는 妄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女子가 그러한 상대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그것이야말로 男尊 女卑의 사상이다.

婚姻은 代를 물려 주는 것을 뜻한다. 요즘 말로 世代 交替를 뜻한다. 그러므로 경사스런 일이지만, 한편 눈물겨운 일이다. 그래서 '婚禮는 賀禮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리고 '며느리를 데려 오는 집에서 三日間은 風樂을 擧行하지 아니함은 어버이의 이음(後嗣)을 생각함이라'고 했다.

그것보다도 부모가 딸을 시집보내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안 보낼 수는 없지만 차마 보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하지 않고 남들이 대신 하는 것이다. 上客도 아버지가 가지 않고 祖父나, 從祖父, 伯叔父나 親戚 어른이 가도록 해 왔던 것이다.

新郎과 新婦가 아무의 도움도 없이 同時에 入場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다. 無妨하다고 생각된다. 天主敎 聖堂에서는 입장의 順序조차 없이, 신랑과 신부가 禮式을 시작하기 전에 각각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다.

3.4 壻東婦西와 相見禮

禮席에서 신랑은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서서 서로 禮를 행한다. 그런데 현대 예식장에서는 반대로 서고 있다. 어느 것이 옳다고 斷定하기 어렵다. 天主敎의 儀式은 壻東婦西인 것 같은데, 다른 宗敎 儀式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相見禮는 앞에서 여러 번 言及했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禮이므로 무엇보다도 정중하고 엄숙하게 거행해야 할 것이다. 신랑·신부가 盛裝은 하였으나 자리가 옳지 않으니, 鄭重하고 嚴肅하게 하기 어렵다. 좀 더 넓은 장소에 華麗한 꽃자리를 마련해서 韓國式 큰 절을 올렸으면 좋겠으나 禮式場 構造가 허락하지 않는다. 醮禮床이 없으니 물론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男子는 陽數이므로 홀수인 한 번, 女子는 陰數이므로 짝수인 두 번이었으나, 남

존 여비라는 오해만 사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改善의 여지가 있다.

3.5 賀客에게 對한 人事

신랑·신부가 禮式場에 나오기 前에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을 것이지만 예식을 마친 뒤에도 부모를 앞에 두고 祝賀客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러므로 신랑·신부가 함께 兩家 父母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다음 양가 부모와 함께 신랑·신부가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겸해 절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신랑 신부가 大禮服을 입고 일반 손님에게 인사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아무리 洋服이지만 대례복임에는 틀림없다. 신부가 媤父母에게 見舅姑禮를 行할 예정이긴 하지만 부모를 옆에 두고, 남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折衷하여 時俗을 따를 수밖에 없다.

3.6 見舅姑禮

見舅禮라고도 하며, 신부가 처음으로 신랑의 부모인 媤父母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다. 見은 현으로 읽으며, 뵈옵는다는 뜻이다. 요즈음 '幣帛드린다'는 말을 쓰는데, 인사할 때 폐백을 드리니까 생긴 말이다. 폐백이란 신부가 시부모에게 드리는 禮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장소를 幣帛室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폐백드리는 것이 主가 아니고, 시보모를 뵙는 것이 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見舅姑禮室 또는 見舅故室이라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見舅姑禮는 媤祖父母가 살아 있더라도 媤父母에게 먼저 人事하는 것이다. 며느리의 자리에 앉음을 申告하는 것이다. 물론 며느리로서 한 가정의 안 주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도 다짐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시부모가 며느리를 데리고 시조부모에게 인사를 시키는 것이다. 새 며느리를 맞이했노라고, 보고 겸 인사를 올리는 것이다.

이 때 신랑이 禮服을 입고 신부와 함께 절을 할 필요가 전연 없다. 오히려 큰 失禮가 될 수도 있다. 현구고례는 신부가 媤父母를 뵙는 禮이기 때문이다. 현구고례는 신랑에게는 관계 없는 것이다. 禮席에서 입지 않았던 禮服

을 禮가 다 끝난 뒤에 다시 입는 것도 이상하다.

현구고례는 신부가 시부모에게 큰절(禮拜)을 하는 것이다. 신부가 큰절을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켜서도 안된다. 부모, 조부모, 백숙부모와 동등한 사람에게만 큰절을 할 것이지, 그 外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 외의 사람은 모두 같이(徒拜)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媤叔이라 해서 큰절을 받고, 심지어 시누이가 媤妹夫와 함께 큰절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큰절을 했다고 해서 돈을 바라서도 안된다. 옆에서 절 값을 내라고 재촉하기도 하며, 절 값을 받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큰절을 해서도 시켜서도 안된다. 시숙, 시고모부, 시매부를 불러다가 앉혀 놓고 절을 하고 절 값을 받는 풍습은 없어져야 한다.

兩家 父母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위 新式으로 신랑·신부가 절을 함으로써 첫 인사를 대신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음직 하나, 좀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같다.

3.7 接賓客

接賓客은 손을 접대하는 禮이다. 남의 慶事스런 일을 축복해 주고 扶助하러 온 사람에게 대하는 주인의 道理이다. 자기 집안 일을 도와 주고 잘 되도록 福을 빌어 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마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친절하게 예의를 갖추어 대접해야 될 것이다. 凶事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결혼식에 오면 우선 약간의 부조금을 내거나, 기념품을 가져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접수하는 곳에 접수하는 사람이 있어서 돈이나 물건을 인수하고 장부에 기록해 왔다. 옛날에는 時到라고 해서 그 때 도착한 사람을 모두 기록했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芳名錄, 賀客錄, 扶助記 등의 이름으로 축하객의 명단을 적는다.

그런데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을 주인 쪽(접수하는 사람)에서 쓰지 않고 장부만 내어 놓아 손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쓰라 하는 곳이 종종 생겨나기 시작했다. 접수하는 사람은 돈 봉투만 챙겨 넣고 뻔히 보고만 있다. 이것은 아마 서울에서 먼저 생겨 난 것이 아닌가 한다.

大邱를 비롯한 地方에서도 喪家에 가면 弔慰錄에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쓰

도록 하는 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賻儀 封套는 물론 주인 쪽에서 챙겨서 賻儀錄에 記載를 한다. 어떤 모임에 가도 그렇게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변해갈 모양이다. 옛날 시도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으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있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끼 그저 따라 배우는 것이다.

'남의 이름을 모르니, 자기 이름은 자기가 적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접수할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칠십 노인들은 눈이 어둡고 손이 떨려 글씨를 잘못 쓰고, 또 누구라도 엎드려 서서 쓰기란 정말 괴로운 일이다. 婦女子들은 글씨를 자주 써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 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자기 이름일지라도 쓰기가 겁나고 부끄럽다. 정말 그들에게 땀 흘리고 가슴 조리게 한다. 주저주저하며 눈치만 보다가 扶助 封套만 내밀고, 급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失禮인지를 모두 별로 생각지 않는 것 같다.

또 扶助를 받을 줄은 알지만 旅費를 줄 줄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旅費를 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자기 일을 도와 주고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이라면 점심 대접과 여비쯤 주어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받을 줄만 알고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다. 더구나 나이 많은 사람의 경우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대접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家庭儀禮法에 旅費 주는 것과 飮食 待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弊端이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是正하고 補完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 수 없다. 無事安逸主義에서 오는 惰性인 것이다.

4 問題點 및 弊端

問題點과 弊端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수 없이 擧論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말썽이 많은 것은 婚需 문제일 것이다. 財物을 가장 重視하는 때문이다. 人

格을 돈으로 換算하는 傾向은 墮落한 사회일수록 심한 것이다.

4.1 配偶者 選擇

配偶者를 選擇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家庭의 傳統이나 敎育 人品보다 財産 程度 將來의 出世 可能性에 촛점을 둔다. 얼마나 많은 富를 누릴 수 있으며, 얼마나 큰 權力을 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關心과 基準이 되고 있다.

背景이나 學閥이 중요시 되니까, 인기 있는 大學, 장래가 有望한 學科 出身이라야 값이 올라가는 것이다. 사람의 將來란 알 수 없는 것, 誠實한 정신과 노력이 먼 장래를 左右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젊은 당사자들은 흔히 말하기를 사랑하니까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婚姻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男女 關係는 가까이 오래 相對하면 누구나 쉽게 가까와져서, 깊이 사랑에 빠져 들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정렬에 불타는 젊은 男女들은 사랑에 눈이 어두워 事理 判斷이 明確하지 못한 수가 많다. 젊은이가 아닌 나이 많은 사람들도 犯하기 쉬운 것이 남녀간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해서 그것만으로 婚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를 알아야 한다. 사랑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信義 義理라는 것이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金城鐵壁같이 믿다가도 하루 아침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임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無視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家庭과 社會 生活은 家族과 親戚 이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들의 생각을 度外視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婚姻이 두 사람의 特權이고 自由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父母와 兄弟姉妹 親戚까지도 깊이 관계되는 것임을 認識해야 한다.

父母와 兄弟 姉妹를 벗어난 사랑은 眞正한 것, 永遠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眞正한 幸福, 永遠한 幸福을 追求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장 평범한 理致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配偶者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現實 生活에서, 둘만의 사랑을 고집하여 혼인함으로써 크나큰 不

幸을 겪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當事者들 뿐만 아니라, 위로는 父母 祖父母들, 옆으로는 兄弟 姉妹들과 一家 親戚들까지도, 잘못된 혼인으로 인하여 더할 수 없는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물론 夫婦 生活의 誠實性 與否가 중요하겠지만 成長하는 子女들의 幸, 不幸 및 將來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4.2 婚姻의 重要性

인간은 누구나 男女間에 婚姻해서 夫婦가 함께 사는 것이 理致에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聖賢들은 婚姻을 무엇보다도 重하게 여겼다. 인간 생활의 根本이 夫婦라고 보았다. 그래서 婚姻은 六禮를 갖추어 가장 鄭重히 行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사람들은 혼인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傾向이 있다.

잠시 만났다가 아무렇게 헤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다. 혼인할 때의 평생을 같이 살기로 한 約束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약속이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큰 약속은 없다. 그런데도 그 약속을 쉽게 저버린다면,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겠으며, 어떤 일을 올바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다른 모든 일에 성실치 못할 것이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를 다녔고, 높은 직위나 명예를 차지했더라도 인생의 失敗者이며, 落伍者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것이다. 태어나서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되어 있다. 肉體的으로 키, 몸무게, 얼굴, 힘 등이 같지 않고, 정신적으로 생각, 판단, 성격, 가치관 등이 다르다. 그래서 男子는 天, 乾, 健, 陽, 剛으로 표현되는 속성이 있으며, 女子는 地, 坤, 順, 陰, 柔로 표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그렇다고 남자가 낫고 여자가 못한 것이 아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할 일이 있다. 남자와 여자의 責任과 任務는 서로 다른 것이다. 남녀간의 책임과 임무는 다르지만 그 중요성과 價値는 同等한 것이다.

남자에게 없는 것이 여자에게 있고, 남자가 못하는 것을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여자에게 없는 것이 남자에게 있고, 여자가 못하는 것을 남자

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남녀가 같이 삶으로써 서로 모자라는 것, 못하는 것을 補完하고 도와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完全한 人間 生活이 되는 것이다.

性格과 價値觀이 같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認定해야 한다. 道理와 役割이 다르다는 것이 夫婦有別의 原理이다. 別은 差別이 아니고 分別이다. 그래서 夫婦間는 重要한 것이며, 生民之始요 萬福之源이라고 했다.

4.3 其他 問題

婚姻의 時期, 季節, 날짜, 時間, 婚需 문제, 風俗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일일이 다 言及할 수 없다. 한 門中이나 家庭의 傳統, 習慣, 文化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現實의 生活 環境이나 與件을 考慮할 것이고, 옛날 예법을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옛 禮法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오랜 傳統과 文化 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外來 文化를 批判없이 無知하게 받아들여서는 문화인답지 못하다.

5. 맺는 말

婚禮는 중요한 예식이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절차와 단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옛날 흔례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옛것을 현실에 맞게 살리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中媒에 依하거나 당사자들끼리 알게 되어 사귀고, 결혼이 성립되거나 어쨌든 절차는 있어야 하고 예식은 치러야 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인정을 받아야 함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결혼식 이전의 여러 가지 과정이나 결혼식 이후에 따르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다 언급하지 못했다. 다음 기회로 미룬다.

옛날 예식이 거의 없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되살아 나는 현상도 있지만,

현대의 결혼식은 한 마디로 말해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필자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본 것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아니다. 많은 誤謬와 억지가 있음도 自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생각과 방안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것이며, 단시일에 개선된다고도 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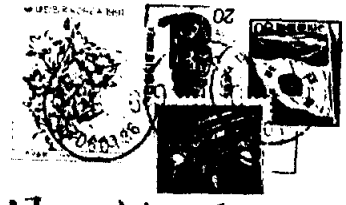
다만 우리 모두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서, 현대 우리 생활에 맞는, 좋고 아름다운 통속을 새로 창안해 보자는 뜻이다. 中正을 기하고 이치에 합당한 사람의 도리를 찾아 보자는 것이다. 이 방면의 권위 있는 사람과 관심 있는 이들의 叱正을 바란다.

끝에 模範이라고 생각되는 請牒 몇 가지와 封套, 그리고 옛 婚禮 笏記의 例를 添附해 두어 배우는 이에게 參考하도록 한다.

보내는 사람 池浚模
市内壽城區
泛東3洞2114
706-013

받는사람 金時晃 教授
市内北區代紫洞
慶北大人文大漢文學科
702-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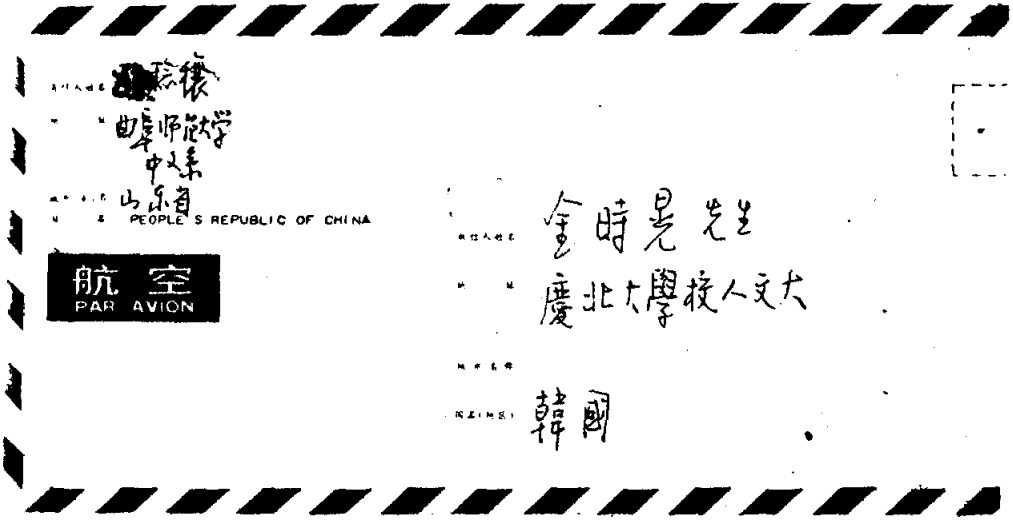
000949



[illegible]珍穰
[illegible] 曲阜师范大学
中文系
[illegible] 山东省
[illegible] PEOPLE'S REPUBLIC OF CHINA

航空
PAR AVION

[illegible] 金時晃先生
[illegible] 慶北大學校人文大
[illegible]
[illegible] 韓國



〒156
日本 東京都 世田谷区桜丘
3-9-31
川上 恵天

植 奐範 様

韓国 大邱市 西区 内唐ノ洞
三益 New Town 107-207
KOREA

PAR AVION
航空郵便

AIR MAIL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한국전기통신공사
남대구 전화국장
7 0 5 - 0 3 9

대구우체국
요금후납

받는 사람 김 시 황
수성구 수성2동 117

763 6761

7 0 6 - 0 3 2

알리는 말씀

새해를 맞이하여 댁내에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 ○ ○ 씨의 아들 ○ ○

○ ○ ○ 씨의 딸 ○ ○

두 사람이 아래와 같이 혼례를 행하게 되었으니 평소 아껴 주시던 인정으로 격려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1994년 1월 28일(금) 12:00

장소:프린스호텔 별관2층 전화(053)628-1001

〈명덕네거리 서쪽 200미터 지점〉

1994년 1월 일

친족대표 ○ ○

○ ○ ○ 드림

좌 하

請 牒 狀

歲暮에 즈음하여
尊體候 萬安하심을 仰祝하나이다.
삼가 아뢰올 말씀은

缶林后人 洪 ○ ○ 氏의 長男 ○ ○ 君과
慶州后人 金 ○ ○ 氏의 長女 ○ ○ 孃이

主禮 蕉山 沈載完 博士님의 執禮로
아래와 같이 百年佳約의 華燭을 밝히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이옵니다.

- 日時 : 1994년 12월 18일(陰 11. 16) 日曜日 午前 11時
- 場所 : 大邱直轄市 壽城區 斗山洞 888-2番地
  수성관광 호텔(은하수홀) ☎(053) 763-7311

1994년 12月 日

청첩인 李 昌 東 올림

請 牒 狀

○○○氏 次男 ○○
○○○氏 次女 ○○

이 두 사람의 婚禮를 ○○○博士의 主禮로 ○月 ○日(○曜日) 上午 ○時 ○○禮式場에서 擧行하게 되었사오니 光臨의 榮을 베풀어 주시옵기 敬望하나이다.

年 月 日

友人代表 ○○○

○○○氏 座下